

시민 기록활동의 정동적 영향: 개념과 분석 방안을 중심으로

The Affective Impact of Citizen Archival Activities: Toward a Conceptual and Analytical Framework

배은희(Eunhee Bae)¹, 설문원(Moon-Won Seol)²

Email: bbyang95@gmail.com, seol@pusan.ac.kr



1 제1저자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박사과정
2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논문접수 2024.7.16
최초심사 2024.7.26
게재확정 2024.8.17

ORCID

Eunhee Bae
https://orcid.org/0000-0001-7875-4310

Moon-Won Seol
https://orcid.org/0000-0001-8696-8351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초 록

2000년대 이후 서구에서는 공동체 아카이브 관련 연구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기록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최근 시민이나 주민이 참여하는 기록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기록의 생산자로서의 공동체 구성원의 역할이 중요해진 국내의 상황에서 '기록활동'이라는 행위가 시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최근 기록학계에서 논의되는 정동적 접근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인 감정과 달리 정동(affect)은 "관계를 바탕으로 함께 공유하는 감각"이며, 존재의 변용(affection)이라는 개념을 동반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는 제시된 바 없는 '시민의 기록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동적 영향' 분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민 기록활동의 의미와 개념, 국내에서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방법론 모색을 위하여 공동체 아카이브의 정동적 영향 분석에 대한 Brophy(2005)와 UCLA 연구(2018)의 접근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시민 기록활동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당사자성'의 개념을 결합하는 방안도 함께 탐색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의 기록활동이 기록활동가에게 미치는 정동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Since the 2000s, there has been growing interest in community archival research in the West, and in Korea, projects that support citizen or resident participation in archival activities have also been increasing. With the role of community members as producers of records having gained importance in Korea, it has become necessary to examine the affective approach currently discussed in archival studies, focusing on the impact of "archival activities" on individual citizens. Unlike emotion, which is a personal and subjective experience, affect is characterized by "a sense shared based on relationships" and involves the concept of transformation of being (affect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a method for analyzing the "affective impact applicable to citizen archival activities," an area that has not been previously addressed. To this end, the study reviews the meaning and concept of citizen archival activities and their development in Korea, focusing on the UCLA study (2018) and Brophy's (2005) approach to analyzing the affective impact of community archives to explore methodologies. It also explores the integration of the concept of "partyhood" to better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citizen archival activit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a conceptual model for analyzing the affective impact of citizen archival activities on recorders in Korea.

Keywords: 시민 기록활동, 정동, 영향, 당사자성
Citizens' archival activities, affect, impact, partyhood

1. 머리말

오랫동안 민간기록이나 지역기록에 대한 논의는 기록물관리기관이 수집 대상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공공기록이나 중앙행정기관의 기록뿐 아니라 공공기록에서 다루지 않았던 기록을 수집하여 보존기록(archives)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다. 또한, 여러 집단의 기억을 반영하는 기록의 수집과 활용이 소외집단이나 주변부 계층의 정체성과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높임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공동체 아카이브와의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다양한 기록의 수집과 그러한 기록의 이용 경험이 사회 통합이나 포용이라는 편익을 창출하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연구를 찾기는 어렵다. 특히 개인이나 공동체 구성원의 삶 또는 이들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더욱 찾기 어렵다.

한편 2000년대 이후 서구에서는 공동체 아카이브 활동과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주민이 참여하는 기록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공동체 아카이브의 핵심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자신들의 언어로 기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핵심적 내용을 기반으로 영국의 이민자 집단, 사회 주변부의 공동체나 호주의 원주민, 성적 소수자 공동체가 벌인 아카이브 운동은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운동”으로 주목받기도 했다(Stevens et al., 2010, 59-60, 설문원 2012, 8에서 재인용). 이는 지역 주민이나 이민자, 인종, 성적 소수자, 젠더 등의 범위로 묶인 공동체 구성원이 기록의 피동적 수용자나 대상(subject)이 아니라 기록활동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최근 지방자치 행정에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시민이나 주민이 참여하는 기록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주로 ‘마을기록활동가 양성과정’, ‘마을기록학교’, ‘시민아키비스트 양성과정’ 등의 이름으로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사업들은 지역 유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애郷심을 높여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주민의 기록활동이 지역이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정말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바가 있을까? 국내외를 통틀어서도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해외에서는 주류 아카이브의 경제적, 사회적, 학습 측면의 영향을 분석하거나 측정하기 위한 모형이 제시된 바가 있다. 2009년 미국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진된 Archival Metrics Project나 영국에서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이용자 조사와 이를 분석한 연구들은(Duff, 2011; Yakel, 2012; PSQG, 2001, Horton, S. & Spence, J., 2006에서 재인용 등) 물리적 장소로서의 아카이브를 문화관광자원으로 보고 단기적인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Wavell 등은 여러 문헌 분석을 통해 아카이브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서술했으며, 아카이브와 기록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한 연구자들의 기대를 표현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보았다(Wavell et al., 2002, 31).

주민참여 기록활동이 추구하는 정체성이나 소속감 강화가 단순히 수사(修辭)를 넘어 인식이나 삶의 방식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라면 기록활동의 영향 분석은 주민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수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Brophy(2005)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Brophy(2005)는 정보서비스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영향(impact)’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고,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것일 수 있으며, 태도, 행동, 결과물(outputs)의 변화를 이끌 수 있고, 단기 또는 장기적일 수 있고, 중요할 수도, 사소할 수도 있다는 복잡성을 고려하고 ‘영향 수준 모델(Levels of Impact, LoI)’을 제안했다. Brophy의 연구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영향 평가라는 한계는 있으나 ‘개인’의 ‘행동 변화’에 주목한 연구로 아카이브에서 개인의 영향 분석 기준의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Horton과 Spence(2006, 46)는 공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아카이브의 가치와 개인이 느끼는 가치는 다르므로 영향 평가 대상에 있어 사회에서 개인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는 개인의 변화가 결국 사회적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박성재, 2017, 82) 아카이브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기에 앞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공동체 아카이브 영역에서는 영국의 Community Archives Development Group(CADG)이 2007년에 발표한 조사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주요 영향으로 첫째, 청년과 노인이 만나 상호 존중의식이 함양되고,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발견하며, 공동체에 소속감을 높인다는 내용으로 ‘문화 자본’이 증가한다고 했고, 둘째, 지역을 더 흥미롭고 살만한 곳으로 여기게 해 지역의 ‘거주 적합성’을 향상하며, 셋째, 공동체 아카이브 관련 기술을 익히는 등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넷째,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것으로 정리했다. 299개의 공동체 아카이브가 참여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으며, 사회적 영향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개인에게 미친 영향도 일부 포함하고 있고, 공동체 아카이브의 특징을 보여주는 분석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는 주로 한정된 항목의 설문 조사를 토대로 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Caswell et al., 2016).

Duff 등은 개인적 영향에 대한 연구에는 “설명하기 어렵거나 관찰하기 어려운 무형의 정서적(emotional), 심리적(psychological), 정신적(spiritual), 문화적(cultural)” 영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Duff et al., 2013, 348). 이와 관련해 최근 아카이브에 정동(affect)의 개념을 접목하여 개인의 감정과 정서에 주목하는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4년에는 UCLA에서 ‘정동과 아카이브(Affect and Archive)’ 심포지엄이 열렸고, 2016년 Archive Science 제16호는 ‘Affect and the Archive, Archives and their Affects’를 주제로 다양한 의제를 담은 논문들을 실었다. 또한, UCLA Community archive Lab(2018)은 공동체 아카이브와 관련된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아카이브의 정동적 영향(affective impact)을 평가하기 위한 툴킷을 개발하기도 했다. 개인적이고 일방적인 경험인 감정과 달리 정동(affect)은 ‘관계를 바탕으로 함께 공유하는 감각’이며, 존재의 ‘변용(affection)’이라는 개념을 동반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UCLA Community Archive Lab의 연구와 제안한 툴킷은 공동체 아카이브와 공동체 구성원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인식의 변화를 정동적 영향으로 보고 이를 분석하는 시도를 했다. 아카이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다른 차원의 접근법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존의 아카이브의 영향에 대한 논의의 흐름을 살펴본 바, 시민이나 주민이 참여하는 기록활동 사업이 증가하며 기록 생산자로서의 역할이 시민에게 주어진 국내 상황에서 이 사업들이 그저 유행하는 주민참여 프로그램 또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취급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의 기록활동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해외의 기록학계에서 논의되는 정동적 접근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동적 접근법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을 탐색하는 방식이며, 기록활동의 결과물인 기록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인 ‘기록활동’에 주목해 영향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시민의 기록활동 참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는 제시된 바 없는 ‘시민의 기록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동적 영향’ 분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민 기록활동의 의미와 개념, 국내에서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동체 아카이브의 정동적 영향 분석에 대한 Brophy(2005)와 UCLA(2018)의 접근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주로 기록물이나 정보서비스를 경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므로, 시민 기록활동의 주체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당사자성’의 개념을 결합하는 방안도 함께 탐색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의 기록활동이 시민에게 미치는 정동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시민 기록활동의 의미와 정동적 영향

2.1 시민 기록활동의 전개

국내 기록학계에서 주민이나 시민이 참여하는 기록활동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윤은하(2012)와 이경래, 이광석(2013), 이경래(2013), 최재희(2014)는 연구에서 북미와 영국의 공동체 아카이브의 역사와 주요 개념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며 이론적 분석을 시도했는데, 이 연구들은 공동체 구성원이 기록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공동체 아카이브의 핵심임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민간기록이나 지역 기록화 관련 논의는 주로 주류 기록물관리기관이나 전문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권순명, 이승휘, 2009; 김화경, 2012; 설문원, 2010; 현문수, 2013), 이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기록으로 주체에 대한 논의가 옮겨지게 되었다. 김익한(2010)은 마을 아카이빙의 특징 중 하나가 ‘주민참여’이며, 주민의 기록 생산, 수집, 관리, 이용을 포함하는 모든 기록활동이 마을 문화 활동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동유와 이경준(2013, 169)은 마을기록은 마을 주민의 “구체적 삶의 양태를 보여주는 일상의 소소한 기록”인 경우가 많은 만큼 주민 누구나 기록의 생산자, 관리자, 이용자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흐름과 맥을 같이하여 주민참여 기록활동 사업이 수도권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활발히 추진되기 시작했다. 서울시 마을아카이브 시범사업과 증평기록관, 청주 문화도시 차원의 기록 사업, 성북아카이브와 같은 사업들과 문화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시민기록 양성사업 등 시민이 참여하는 사업이 증가하면서 공동체 아카이브, 특히 주민주도의 마을기록에 대한 연구가 증가했다(강성봉, 2022; 김미라, 2021; 양월운, 2020; 이경래, 2015; 이도순, 2021; 이정연, 2021). 동시에 손동유(2020; 2021)와 조영삼(2016)이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의 의미를 짚으며 공공기관의 역할과 법·제도적 틀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을 제안하는 등 시민들의 기록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측면에서의 논의도 이루어졌다.

특히 이도순(2021)은 ‘기록활동가’를 “다양한 동기에 의해 자신들이 가장 익숙하고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기록을 수집·채록·생산하여 보존과 활용”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기록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정의했고, 이정연(2021)은 개인이 자신의 기록을 남기며 역량이 축적되면 마을공동체에 대한 기록을 스스로 하게 된다고 하며 지역 논의의 대상으로 주민 ‘개인’에 주목했는데, 두 연구 모두 기록활동가와 주민이라는 기록활동의 주체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조영삼(2022)은 ‘민간’은 ‘공공’의 입장에서 부여된 용어이며, 이러한 용어로는 시민의 기록 지향을 담아 내지 못한다고 서술했으며 윤은하(2023)는 시민의 역사적 개념 변화를 살피며, ‘시민’이라는 용어에는 “시민민주주의의 자산을 드러내고 국가의 작동과 공적 권위에 대한 저항”이 담겨 있다고 했다.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조영삼과 윤은하는 민간기록이나 공동체 기록이 아닌 ‘시민기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한 원종관(2021)은 “기록을 매개로 한 실천, 수집을 위한 관계나 네트워크”를 “기록활동”이라고 정의하며, 기록활동에서 기록은 “매개, 수단, 도구로 기능하며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영삼, 윤은하, 원종관의 논의를 통해 시민 기록활동에 대한 개념화가 시작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장에서는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의 시각에서 문화자원을 발굴하는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 ‘지역 기록화’, ‘로컬리티 기록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지역문화활동 또는 도시재생사업, 지역연구 등 다양한 목적의 사업을 계기로 지역을 기록하는 ‘기록활동가’가 등장하게 되었다(이도순, 2021, 104-105). 그리고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며 도시재생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과 사업으로 발전했다(양월운, 2020).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시민’이 기록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민 기록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은 유행처럼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비해 커리큘럼과 교육과 운영을 위한 인적 자원, 체계적 교육 내용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공공기록관리 영역 이외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이들의 숫자는 한정적이고, 각자의 기록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정도의 단편적인 내용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 또는 글쓰기와 사진 기록, 구술기록 등 주축 측이 제안하는 방법에 한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양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짧은 기간 내에 ‘교육-기록활동-기록물 발표’가 이루어지는 단발성 사업은 시민을 교육과 ‘계몽’의 대상으로 객체화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이도순, 2021, 110-114, 127).

그러다 최근에는 지역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양성 교육’보다는 ‘지원’과 ‘성장’의 개념으로 접근해 시민 기록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이에 대한 성과와 매뉴얼을 축적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기록문화 창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충북 청주시는 2019년 법정 문화도시 선정 이후부터 매년 동네기록관을 지정하여 시민들의 기록이 모이는 거점을 확장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청주 기록활동가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 영도구 또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기록 동아리 지원사업’과 ‘영도 문화도시 연결 기획자 모집’ 사업을 연속 사업으로 기획했다. 문화도시 영도의 프로젝트들은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록활동을 지향하며 다각화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증평기록관의 ‘증평기록가’, 파주 중앙도서관의 ‘시민채록단’, 성북문화원의 ‘주민기록단’ 등 몇 년간의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기록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외에도 부산의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이 부산 성매매 집결지인 완월동에서 ‘시민 아키비스트’ 활동을 기획하거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기록하는 ‘아카이브 에디터’를 모집하는 동시에 시민기록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한 프로그램을 몇 년에 걸쳐 추진하는 등 시민운동 차원에서도 시민 기록활동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의 기록활동 경험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동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며, 시민들이 “기록유산을 계승하고 확산할 주체로 성장”하여 이들의 역량이 지역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영도문화도시센터, 2022).

2.2 시민 기록활동의 개념과 범주

본 연구에서는 ‘주민’이나 ‘민간’ 대신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조영삼(2022)과 윤은하(2023)의 논의처럼 민간기록관리에서의 ‘민간’이라는 용어가 ‘공공’을 기준에 두고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민’이라는 용어 또한 사전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면, ‘시민’이라는 용어에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기록을 생산·수집하고 관리하는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의 의미가 강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록활동’에 대한 원종관(2021)의 정의와도 같이 시민이 기록물의 생산과 수집 활동에 더해 이를 위한 교육을 받고, 여러 대상과 관계를 맺으며 소통하는 등 기록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시민 기록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결과물’인 기록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과정’에 주목하기에 기록물의 생산과 수집 등의 활동은 오히려 “매개, 수단, 도구”로 기능하는 것이 시민 기록활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기존의 시민참여 기록활동들을 살펴본다면, 단순 교육이나 일회적이고 짧은 활동보다는 장기적인 계획하에 진행되는 기록활동을 시민 기록활동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앞서 예시를 들었던 청주와 영도의 문화도시 사업, 증평기록관, 성북문화원, 파주도서관, 완월 시민아키비스트 등의 사례는 수년에 걸쳐서 시민들이 기록활동 경험을 축적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매년 같은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늘고, 진행 방식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이들 사업의 경우 대부분 초반에는 여러

가지 기록 방법을 제시하고 실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추후 시민 개인의 관심 영역에 따라 기록대상과 방식을 시민 스스로가 정하고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는 특징을 볼 수 있다. 또한, 시민을 대상화하는 ‘교육’ 방식이 아니라, 기록을 하기 위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학습’의 과정이라는 관점으로 프로그램 방식이 변화하고 있기도 하다. 이 과정에 기록대상과 주제를 정하는 워크숍, 진행 상황을 공유하거나 기록활동과 결과물을 발표하는 장이 수차례 진행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시민 기록활동가 간에, 시민 기록활동가와 기록 대상인 지역 주민 간의 관계가 축적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대체로 단년 사업으로 끝나지만 10회 내외 또는 2~3개월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다수 발견되는데,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장기적인 사업의 특징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시민 기록활동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의미가 더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3 시민 기록활동의 정동적 영향

2.3.1 정동의 개념

1990년대 중반 이후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반에서 정동이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이러한 정동적 전환은 “정동, 감정, 느낌을 학문적으로 정당한 대상으로 삼는 것 이상”으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을 정당하고 엄격하게 도입하고, 숙고하여 문화 비평에 적용”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Cifor, 2016, 10). 정동(affect)은 철학 분야에서 제기되어 지금은 정치학, 사회학, 문화연구, 문학 이론과 예술비평, 역사와 페미니즘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정동이 무엇인지 합의된 바가 없다(Cifor, 2016, 10). 대부분 정동의 개념을 표현한 글들은 정의가 아니라 정동의 특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동을 처음 제기한 Spinoza(1677/1990, 131)는 자신의 대표적인 저작물 『에티카(Ethica)』에서 “정동(affect, affectus)을 신체의 활동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신체의 변용(affectio, affectio)인 동시에 그러한 변용에 대한 관념”이라고 정의했다. 정동을 이론적 지평으로 올려놓은 Massumi(2015/2018, 12-13)는 Spinoza의 정의를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힘(affect and be affected)”으로 요약하며, “정동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사건이 된다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이러한 정의와 해설에서 정동의 몇 가지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자면 먼저 정동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쌍방향적 운동”이라는 것이다(최진석, 2019b, 2). 감정이 개인적이고 일방적인 경험이라고 한다면, 정동은 ‘관계성’을 바탕으로 함께 공유하는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정동은 정신적 영역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Hardt와 Negri는 “정신적 현상인 감정과 달리 정동은 신체와 마음을 동일하게 가리킨다.”라고 표현했다(Hardt & Negri, 2000, 박현선, 2016, 70에서 재인용). 이성과 육체를 분리하고 이성적인 것만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근대적 개념과는 달리 정동을 통해 긍정적 영향을 받으면 신체 능력도 상승하고, 부정적 영향을 받으면 신체 능력도 감소한다는 것이 Spinoza가 말하는 정동의 특성이다. 세 번째, 정동은 ‘변용(affectio)’의 개념을 동반하는데, 이는 하나의 신체가 다른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최원, 2016, 83). 신체의 능력이 상승하는 긍정적 변용을 야기한 정동은 ‘기쁨’이고, 신체의 능력이 감소하는 부정적 변용을 야기한 정동은 ‘슬픔’이다. Spinoza와 Deleuze는 기쁨과 슬픔을 가장 기본적인 정동으로 제시했다(최원, 2016, 86).

이러한 정동의 개념은 언어와 역사, 문화 등을 내셔널리즘과 결합하여 “동일성의 감정”을 대중들이 느끼게 하여 “동원의 시대”를 만들었던 독일의 나치 권력과 같이 국가적 통합을 위해 대중의 감성을 활용했던 근대사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적용되었다(최진석, 2019a, 357-358). 또한, 이동연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재난에

대한 통치자들의 대처 과정에서 혐오와 증오, 분노, 공포라는 정동의 감정들이 ‘사회적 애도’를 뒤덮어버리고 무력화시켰으며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재난의 정동”이라고 서술한 것과 같이(이동연, 2016, 25-26) 정동은 “현실 사회와 문화 정세를 읽는 새로운 개념이자 분석 틀”로 제시되기도 한다(김성일, 2016). 이처럼 권력이 만든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보다 포섭되기 쉽다는 것이 정동의 속성이기도 하다(이동연, 2016, 58). 이에 이동연(2016, 58)은 “정동적 전환은 체제와 감정의 대안으로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체의 역능(puissance)¹⁾에 대한 사유와 실천이 필요한 일”이라고 서술하기도 했다. 국가나 권력과 같이 ‘큰 것’에 복속되는 과정을 “나쁜 만남”이라고 하고, “역사에서 패배당하고 버려진 존재, 보이지 않고 가려지고 배제된 자들”, 즉 ‘가장 작은 것’과의 연대를 “좋은 만남”이라고 한다면, ‘가장 작은 것’들과 “불가능한 동일시”가 가능할 때 비로소 윤리가 작동하고, 공동체와 새로운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최진석(2019a, 369-370, 372)의 서술이 신체적 역능에 대한 사유와 실천과 맞닿는다고 할 수 있겠다.

정동에 대한 논의는 “개인적·주관적 감정조차 사회적인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이경래, 2023, 13), 시민 기록활동의 개인적 영향을 분석에 있어서 정동적으로 접근했을 때 단순히 시민이 느끼는 감정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배경이 되는 관계와 내용을 풍부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또한, 시민들이 기록활동을 통해 어떠한 존재와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 받으며, 변용하고 변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던지기도 한다.

2.3.2 정동에 대한 기록학에서의 논의

기록과 기억 연구에서 정동의 논의를 끌어온 연구들은 정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록학 내에서도 정동은 공통된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정동의 특징을 담은 정의를 각 연구의 논의에 맞추어 사용하고 있다.

-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무기력하고 불쾌하게 만들거나 활력을 불어넣고 결집시키는 등 모든 종류의 감정을 독립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조합으로 포괄하는 인간의 능력”(Gilliland, 2015, 31)
- “신체(개인 또는 집단)와 세계 사이에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힘으로,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으로 구성된 범주로서 감성과 감정을 포괄하고 그 너머에 도달하는 개념”(Cifor, 2016, 10)
- “현상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반응, 인식, 경험의 총체”(Halilovich, 2016, 78)
- “의식, 반의식, '의식적 앎 이외의 것', 즉, 사고, 행동, 관계의 근간이 되는 비인지적, 비언어적, 비합리적 힘을 포함하는 감성과 감정의 '밑에 있는' 본능적인 힘”(UCLA Community Archives Lab, 2018, 5)

문화이론가이자 『감성의 아카이브(An Archives of Feelings)』의 저자인 Cvetkovich는 아카이브 자료를 포함한 ‘문화적 텍스트’가 ‘감성과 감정의 저장소(repositories of feelings and emotions)’이며, 그 내용 속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정동이 암호화되어 있다고 서술했다. 이에 “친밀감, 섹슈얼리티, 사랑, 행동주의”의 정동적 경험을 기록하는 “급진적인 감성 아카이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Cvetkovich, 2003, 7, Cifor, 2016, 14에서 재인용). 이는 기록학에서 기록관리 전통을 넘어 기록물의 평가에서 “지배적인 권력 구조를 붕괴시키고, 문서화되지 않은 공동체와 경험을 수집하며, 문화적 맥락과 앎의 방식을 확장”한다는 정동의 잠재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다(Cifor, 2016, 16).

1) Deleuze와 Guattari가 사용하는 ‘역능(puissance)’ 개념은 유럽의 ‘권력(pouvoir)’ 개념과 대비되어 쓰인다. 역능을 지닌 특이성들이 차이를 확인하면서 서로 새로운 것을 구성해 나가는 방식을 통해 권력대표가 아닌 새로운 사회(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문제의식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권력자의 지배 개념에서 벗어나 특이한 개별자가 지닌 새로운 것을 구성해 내는 능력을 말한다(철학사전편찬위원회, 2009). 이동연이 말한 ‘신체의 역능’은 권력에 의해 대중들이 부정적인 정동에 물들기 쉽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긍정적 정동을 만들어 내는 주체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UCLA에서 열린 ‘정동과 아카이브(Affect and Archive)’ 심포지엄은 성 소수자, 인권, 페미니즘, 노동, 이주와 디아스포라, 전쟁, 예술, 대중문화 등에서의 정동과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로 채워졌다. 이 심포지엄 이후 2016년 Archive Science 16호는 ‘Affect and the Archive, Archives and their Affects’를 주제로 ‘정동과 아카이브’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 두 편을 포함해 아카이브에서 정동에 접근한 다양한 연구를 실었다. 심포지엄과 Archive Science 16호는 다양한 학제 간의 논의를 아카이브와 결합한 시도로 아카이브 연구에서의 정동적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Lowry, 2019, 189-190).

Cifor & Gilliland(2016, 2)는 역사적으로 ‘실재하는 것’과 ‘유형의 것’에만 관심을 가져왔던 기록학 현장에서 정동 논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은 던진다고 서술했다.

- 기록관리 프로세스나 기록물 또는 아카이브의 물리적 장소가 사람들에게 정신적, 생리학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은 무엇이고, 그러한 반응의 본질은 무엇인가?
- 기록의 부재 또는 복구 불가능성이 개인, 공동체, 국가에 미치는 정동은 무엇인가?
- 기록과 아카이브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기록생산자나 기록 생산에 관여한 사람들이 경험한 다양한 감정과 정동을 포착하거나 담고 있는가?
- 아키비스트는 잠재적 이용자들에게 그러한 감정이나 정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며, 이용자들의 정동적 반응과 반작용을 어떻게 예상하고 대응해야 하는가?
- 아키비스트는 어떤 종류의 정동을 경험하는가?
- 정동에 대한 고려는 실무 아키비스트에게 어떤 윤리적 의무와 딜레마를 제시하는가?
- 정동적 고려 사항을 명시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어떤 이론적 개념과 모델에 도전할 수 있는가?

위의 질문을 통해 기록학에서 정동과 관련된 논의가 무한하게 펼쳐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기록학이 기록의 생산, 평가, 보존, 활용까지 기록관리의 과정에 대한 이론과 방법에 주목했다면 이 과정에 관계된 주체들이 느끼는 정동이 기록관리 실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로 이와 같은 질문들을 제시할 수 있다. 위 질문에서는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의 주체를 물리적 장소로서의 아카이브, 기록물, 기록생산자, 기록대상, 이용자, 공동체, 아키비스트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주로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의 역할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기록활동을 중심에 둘 경우,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와는 다른 정동적 관계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아키비스트의 정동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중심에 놓고 탐색한다면 정동의 주체를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다. 위의 질문 중 세 번째 질문과 연계하여 “기록 생산 또는 수집, 관리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다른 사람들”에 주목해서 본다면 공동체 아카이브나 시민 기록활동에 관련된 보다 다양한 정동의 주체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2.3.3 시민 기록활동에서의 정동적 관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록 생산 또는 수집, 관리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사람들’인 시민 기록활동가가 활동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정동적 관계 유형은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첫째는 시민 기록활동가와 기록의 직간접적인 대상(subject)이다. 기록대상은 기록이 다루는 사람이거나 기록의 주체와 관련된 장소나 사물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시민 기록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기록 생산이나 수집의 유형 중에는 구술기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직접적 대상이 아니더라도 장소와 사물 등을 주제로 할 때 이와 관련된 기억을 나누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건 필연적인 일이다. 시민 기록활동의 특성상 가깝게 지내거나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을 기록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록 과정에서 가까운 관계라도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생각과 감정 등을 접하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 중요한 정동적 관계가 될 수 있다.

둘째, 시민 기록활동가와 기록활동 동료들이다. 시민 기록활동 프로그램에 따라 팀을 꾸리거나 개별로 활동할 수 있다. 지역과 기록활동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만나게 되는 동료들 간에 서로의 기록 주제나 대상, 방식을 의논하고, 서로 조언이나 도움을 주며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는 과정에서 정동적 경험이 생길 수 있다.

셋째, 시민 기록활동가와 지역 공동체 구성원이다. 직접적인 만남으로 형성된 관계는 아니더라도 기록물을 활용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생산·수집된 기록물을 매개로 의도적이거나 우연히 만나게 되는 공동체 구성원들은 시민 기록활동가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알게 되고, 지원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기도 한다. 또한, 기록의 내용에 따라 지역에 대한 인식이나 감정이 달라지는 등의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넷째, 시민 기록활동가와 활동가이다. 여기서 활동가는 시민 기록활동의 전반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사업 주체, 사업 담당자, 기획자, 기록활동가 등을 포함해 임의로 지칭한 용어이다. 이들은 시민들이 기록활동을 기획하고 활동하는 장을 만들고 교육이나 상담, 워크숍 등을 통해 활동을 지원하며, 시민들의 요구를 취합하여 시민 기록활동 사업의 방향을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 이 역할을 위해 시민 기록활동가와 활동가의 소통이 중요하며, 기록활동을 통한 시민의 성장과 시민의 정동적 경험까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시민 기록활동가는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이웃을 만나며, 활동에 대한 영감을 얻거나, 지원과 지지를 받기도 한다. 이는 세부적인 조사 사례를 통해서 추가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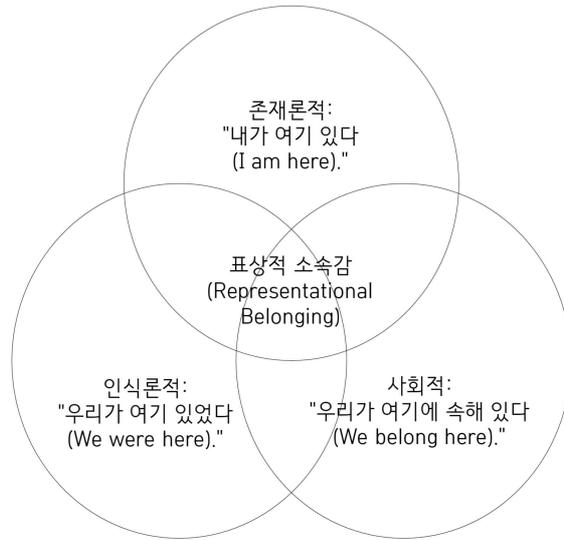
3. 아카이브의 정동적 영향 분석 방법

3.1 아카이브의 정동적 영향 분석 사례

기록활동의 정동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UCLA Community archive Lab에서 발표한 ‘공동체 아카이브의 정동적 영향 평가: 툴킷(Assessing the Affective Impact of Community Archives: A Toolkit)’(2018)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툴킷은 공동체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공동체에 “정서적(또는 정동적)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도구로 공동체 아카이브가 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식을 밝힘으로써 예산 지원을 늘리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개되었다. 이 툴킷은 공동체 구성원이 공동체 아카이브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감정의 변화” 또는 “자신과 공동체, 세상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표현”하는 것을 정동적 영향으로 보았고, 이러한 영향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다고 했다.

UCLA Community archive Lab은 남부 캘리포니아의 12개 공동체 아카이브의 설립자, 직원 자원봉사자, 17명을 인터뷰하고 분석하는 데에 “상징적 소멸(Symbolic annihilation)²⁾”이라는 개념을 접목하여, 공동체 아카이브의 영향을 “존재론적 영향(소외된 공동체 구성원이 ‘내가 여기 있다’라는 확인을 얻는 것), 인식론적 영향(소외된 공동체 구성원이 ‘우리가 여기 있었다’라는 확인을 얻는 것), 사회적 영향(소외된 공동체 구성원이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확인을 얻는 것)”으로 구성된 분석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제안했다.

2) 상징적 소멸은 주류 미디어와 아카이브에서 소외된 집단 구성원이 부재하거나 과소 대표되거나, 왜곡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이다 (UCLA Community archive Lab, 2018).



<그림 1> 상징적 소멸에 대한 공동체 아카이브의 영향

툴킷에서 말하는 ‘존재론적 영향’은 기록을 통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는 것, ‘인식론적 영향’은 자신과 관련된 공동체의 존재와 역사를 이해하는 것, ‘사회적 영향’은 자신의 존재가 자신이 관련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각각의 영향은 감정적 경험으로 인해 순차적이라기보다 상호 영향을 주거나 교집합 되는 관계일 수 있음을 모형에서 보여주고 있다. 주류 언론 매체와 기억 기관에서 소외되는 현상인 ‘상징적 소멸’의 환경에서 “복잡하고, 의미 있고, 실질적이며,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립, 규정 반영할 수 있는 자율성과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표상적 소속감(representational belonging)”이라는 용어를 제안하며 분석 모형에 함께 적용했다. 결국, 표상적 소속감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 아카이브를 통해 인식론적, 존재론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툴킷은 공동체 아카이브 구성원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끌고, 문서화하기 위하여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정성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인터뷰 또는 초점 그룹을 통해 수집한 질적 데이터를 가지고 1차 코딩을 해 이 모형에 해당하는 내용을 식별하고 세부적인 주제를 부여(예: ‘감정적 영향: 흥분’, ‘감정적 영향: 연민’, ‘표상적 소속감: 존재론적 영향/“I am here”’ 등)했으며, 2차 코딩에서 이 주제들을 비교 분석하여 “표준화된 어휘 또는 단어 주요 목록을 개발”했다. 감정과 관련한 어휘는 어떤 특정한 기준으로 만든 것이 아니며, “녹취록에서 유기적으로 드러난” 어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공동체 구성원이 아카이브와 기록을 접하고 이용하며 나타나는 “감정의 변화” 또는 “자신, 공동체나 세상을 어떻게 느끼는지 표현”하는 것을 정동적 영향이라고 했으나, ‘감정적 영향’과 인식론적, 존재론적, 사회적 영향의 구체적인 관계가 분석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다. 또한, 공동체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공동체의 성격에 따라 다른 정동적 영향이 발견되어 분석 틀이 변화할 수도 있고, 아카이브와 기록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정동적 영향이 아닌 ‘기록활동’에 주목한 연구에서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 기록활동의 영향 연구에서는 이 모형을 기본으로 하지만 변형 또는 개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 많은 사례 연구를 통해 검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3.2 아카이브의 개인적 영향 분석 사례

아카이브의 개인적 영향을 분석한 또 다른 사례로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영향 평가를 위해 이용자의 영향으로 접근한 Brophy의 영향 수준 모델(Levels of Impact, LoI)을 참고할 수 있다. Brophy(2005, 44)는 영향(impact)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고,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것일 수 있으며, 태도, 행동, 결과물(outputs)의 변화를 이끌 수 있고, 단기 또는 장기적일 수 있고, 중요할 수도, 사소할 수도 있다고 그 특징을 이야기했다. 또한, 서비스의 즉각적인 반응에 의존한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결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이 결과로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바뀌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며,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중요한 변화로 보았다(Brophy, 2005, 44-45). LoI 모델은 영향을 -2부터 6까지로 구분하여 강한 반감(Hostility), 부정적(Dismissive), 아무 영향이 없음(None), 인식 제고(Awareness raised), 정보 습득 향상(Better informed), 지식 향상(Improved knowledge), 인식 및/또는 능력 변화(Changed perception and/or ability), 세계관 변화(Changed world view), 행동 변화(Changed action)로 제시했다.

Brophy의 연구는 서비스를 경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개인을 대상으로 ‘인식의 변화’뿐 아니라 ‘변화된 행동’에 주목한 연구로 시민 기록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영향 연구의 내용적 틀을 마련하는 데에 시사점을 준다. 이는 기록활동을 통한 시민의 인식 변화의 내용과 어떤 존재로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데에서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Brophy의 모델에서 말하는 인식 변화와 능력 변화, 세계관 변화 등은 소외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UCLA Community archive Lab에서 제시한 분석 내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두 모델을 UCLA Community archive Lab의 분석 틀에 접목하여 <표 1>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이 내용을 종합하여 정동적 분석 모형을 만드는 데에 활용한다면 시민 기록활동에서의 정동적 영향 분석 결과를 더 풍부한 내용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UCLA Community Archive Lab의 모형에 Brophy의 영향 비교 접목

	UCLA Community Archive Lab	Brophy
인식의 변화	· 우리가 여기 있었다: 공동체의 존재와 역사 이해	· 인식 변화와 세계관 변화: 이용자가 주체를 바라보는 방식 및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존재의 변화	· 내가 여기 있다: 자신의 존재 자각	· 정보 습득, 지식 향상과 능력 변화: 이용자의 앎과 성장 · 행동 변화: 학습이 행동으로 이어짐
사회적 변화	· 우리가 여기에 속해있다: 자신이 관련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낌	· 행동 변화: 더 넓은 세상을 변화

3.3 당사자성 획득과 존재의 변화

여기에 더해 ‘당사자성 획득’은 인식과 존재의 변화와 관련해 시민이 기록활동을 통해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정동적 경험을 하며 새로운 존재가 되는 ‘변용’의 개념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개념이다. 공동체 아카이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은 자주 강조되어왔다. 공동체 안에서 그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자각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공동체성이 회복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소속감이라는 감정은 공동체의 입장에서 개인의 존재를 규정하는 개념이며, 공동체에 긍정적인 기제가 되기도 하지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의식적·무의식 중에 배타적으로 대하는 부정적 정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는 공동체 아카이브 논의 초기에 일부 아키비스트와 활동가가 ‘공동체’라는

용어가 정부나 미디어에 의해 ‘다른 것으로 여기게(othering)’하고, 소외시키는 장치로 사회와 집단으로부터 분리(separateness)된 것으로 느끼게 하는 용어(Waterton & Smith, 2010, Durati & Franks, 2015에서 재인용)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도 관련되어 있다. 물론 공동체 아카이브 연구에서 강조했던 소속감은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정동을 의미하겠지만, 이보다는 공동체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발성에 주목하여 ‘당사자성 획득’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당사자성’은 “자신의 의견을 직접 표현하고, 자신의 권익을 지켜내고자 하는 당사자 고유의 정체성과 입장”을 말한다. 이 용어는 주로 법률적 용도로 쓰였으나 최근에는 장애인, 여성, 노동자, 성 소수자, 청년 등 사회에서 소외된 집단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종종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당사자성 획득’은 “당사자의 언어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당사자가 겪고 있는 해당 사안을 사회구성원으로 자신의 문제로 여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배은희, 설문원, 2023, 68). 당사자가 아니거나 스스로를 당사자로 자각하지 못했지만 “상대방의 세계에 눈을 맞추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의 세계를 인정하며 따라가는 노력”을 할 때 이를 ‘당사자 의식을 가진다’ 또는 ‘당사자성을 획득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김경희, 2022, 232). 또한, 박승하와 이은정(2020, 57)은 연구를 위한 인터뷰에서 현장 활동가들이 자신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차별의 당사자로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철폐 당사자’”라고 칭했는데, 이는 “비당사자의 당사자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佐藤知久 et al.(2018/2021)는 시민들이 3.11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기록활동에 ‘작은 당사자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기록 공개 단계에서 기록에 대한 책임성을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며 서서히 기록자가 되는데, 이때 ‘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이 획득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당사자 또는 당사자로 자각하지 못했던 존재라도 당사자와 비당사자의 경계를 허물고, 당사자가 처한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김으로써 자신 또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당사자라는 인식을 가질 때 당사자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인식을 넘어 실천적인 행위를 통해 ‘차별철폐 당사자’나 ‘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 획득과 같이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의 ‘변화’는 정동에서의 변용의 의미와 맞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사자성에 대한 논의들은 주로 사회적 소수자, 자연적·사회적 재난의 피해자와의 연대에서 제기되는 논의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대상을 조금 더 확장하여 역사와 기록의 주체, 공동체나 마을, 지역의 당사자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의 정도가 약했던 시민들이 보다 능동적인 기록의 주체로 기록활동을 통해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나 마을, 지역의 당사자 또는 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 획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당사자성 획득은 경험과 관계가 축적됨에 따라 더욱 명확해지고 단단해지므로 잠재적 영향의 관점에서 다를 수 있다. 이에 당사자성 획득의 개념을 접목하여 시민 기록활동의 영향의 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4. 시민 기록활동의 정동적 영향 분석 모형

시민 기록활동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서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동적 영향 분석을 채택한다. 시민 기록활동에서 시민 개인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그 경험을 분석하는 데에 ‘관계성’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을 다루는 ‘정동’이라는 개념이 적합하다. 감정은 결국 사회적 환경에 의한 것으로서 그 배경을 함께 탐색할 수 있고, 이를 다루는 정동적 접근법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다. 이는 기존에 아카이브 공간 또는 기록물 이용에서 느꼈던 정동과는 또 다른 접근으로 시민 기록활동에서의 관계 경험에 초점을 맞춘 분석 방향이다.

둘째, UCLA Community archive Lab의 분석 모형을 참고하되 Brophy의 분석 내용을 결합했으며,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여 사회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또한, 기록활동에서의 정서적 영향을 식별하고, 인식의 변화, 존재의 변화와의 관계를 규명하며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아카이브의 영향 연구에서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구분하여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는 논의들은 많았는데, 특히 사회적 영향 분석은 장기적으로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시도해야 하며, 그 인과 관계를 분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Duff et al., 2013, 327) 더욱 정교한 모델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이라고 하는 기간의 규정이 필요하지만, 최소한 3년 이상의 시민 기록활동 사례가 국내에서는 아직 드물기에 사회적 영향 분석은 좀 더 연구와 경험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 시점에서 시민 기록활동 과정에서의 정서적 경험이 무엇인지 우선 확인하고, 이에 따른 인식과 존재의 변화를 분석하여, 정서적 경험과 인식과 존재의 변화 간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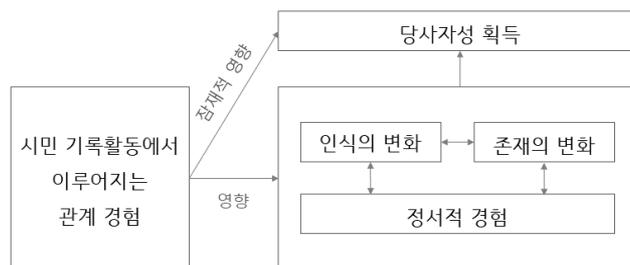
셋째, 시민 기록활동가와 정동적 관계가 형성되는 대상으로는 기록 대상(사람이나 장소, 사건 등), 동료 기록활동가, 기록생산자, 기록이용자, 활동가 등으로 확장하고 더 추적하여 실증적 데이터 수집하고자 한다.

넷째, 분석 모형에 당사자성 획득 개념을 추가하고자 한다. 당사자성 획득 개념은 아카이브의 영향에서 자주 언급되는 소속감에 대한 내용을 시민의 주체적인 존재의 변화와 연결시키고, 공동체 또는 마을이나 지역에서의 정체성 변화를 분석하는 데에 적합하며, 이는 단기적으로는 강도가 약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인식과 존재를 포괄하는 변화에 의해 강화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향에 근거하여 기록활동 과정에서 시민은 어떤 정서적, 감정적 경험을 하는지, 존재론적, 인식론적 변화를 겪게 되는지, 획득하게 되는 당사자성은 무엇인지를 시민 기록활동가의 언어로 표현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의 다양한 표현은 시민 기록활동의 영향을 보다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질적 자료가 될 것이다.

종합하여 시민 기록활동 과정에서 여러 정동적 주체들과의 관계 경험을 통해서 기록활동을 수행한 시민은 정동적 영향을 받게 된다. 정동적 관계 경험은 감정, 감성을 포함하는 정서적 경험이 될 것이고 이 경험은 시민 개인의 인식 및 존재의 변화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게 되고, 인식의 변화와 존재의 변화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험과 변화를 통해 시민은 당사자성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고 쌓여갈수록 당사자성은 더 강화될 수 있기에 잠재적 영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 방향에 따라 <그림 2>와 같은 분석 모형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 2> 시민 기록활동의 정동적 영향 분석 모형

위의 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질적 데이터는 심층 면담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심층 면담은 위 모형과 관련한 내용으로 질문을 구성하지만 반구조화된 면담 형식을 취해 맥락적으로 관계된 다른 질문들의 추가가 가능하다. 질적 데이터의 분석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의 검증과정이 되겠지만, 현장에서의 실증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과정에서 내용적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심층 면담을 위한 질문 내용을 포함한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다.

<표 2> 심층면담을 위한 프레임워크

주제	내용	질문 예시
정서적 경험	관계를 통한 감정, 감성의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활동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과 만났나요? 기록활동 중 사람들과의 교류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감성이 있었나요? (활동가, 동료 기록활동가, 기록생산자, 기록이용자 등) 기록활동 과정에서 발견하거나 알게 된 기록 또는 기록대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인식의 변화	연구참여자 자신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활동으로 자신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있나요? 기록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변화한 경험이 있나요?
	지역 또는 공동체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활동으로 내가 속한 지역 또는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거나 생각이 변화가 있었나요?
존재의 변화	연구참여자 역량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활동으로 자신의 지식이나 역량 수준이 높아졌나요?
	지역 또는 공동체 내에서의 실천적 활동 및 관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활동이 지역 또는 공동체 내의 또 다른 활동에 영향을 미쳤나요? 기록활동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에 변화가 있었나요?
	기록활동의 지속성에 대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활동이 사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기록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나요?

프레임워크의 내용과 질문 예시는 UCLA Community Archive Lab과 Brophy가 제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았다. 정서적 경험은 관계를 통해 일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기록활동 중에 관계한 사람과 기록물, 장소, 사물 등의 기록대상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 인식과 존재의 변화는 개인의 내외부의 측면을 구분하였다. 존재의 변화에서는 기록활동의 의미와 지속성에 대한 생각 및 입장 측면에서 접근하여 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의 잠재적 획득을 가늠해 보고자 했는데, 당사자성 획득에 대한 사항은 위 프레임워크의 질문 전반에 녹아나 있으며,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수집한 질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더 자세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다.

5.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기록활동’이라는 행위가 시민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주목하여 정동적 개념을 적용한 분석 모형을 제안했다. 시민 기록활동과 정동의 개념을 먼저 살피고, 기록학에서의 정동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시민 기록활동이 정동적 경험이 이루어지는 현장임을 확인했고, 이러한 경험이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는 지 밝히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기록과 아카이브의 영향 분석에 있어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었던 정동, 감정, 감정이 사회적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개인에 대한 영향 분석에 적용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변화하고 있는 시민 기록활동에 대한 영향 분석은 시민 기록활동의 방향을 정하고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시민 기록활동에서 정동의 논의는 시민 기록활동의 가치와 편익을 논의하는 데에 의미 있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기록활동이 시민들에게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관계를 지향하는 매개로 공동체 또는 마을이나 지역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시민 기록활동의 또 다른 쓸모를 고민하게 하는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기존의 몇몇 평가 모형들이 일정한 수의 사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은 개념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만든 만큼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모형은 현장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변형될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하며,

후속 연구를 통해 시민 기록활동의 현장에서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하여 분석 모형을 완성하고 국내 현황에 맞는 모형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 강성봉 (2022). 자치분권의 시작, 성북마을아카이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1), 237-243. <https://doi.org/10.14404/JKSARM.2022.22.1.237>
- 권순명, 이승휘 (2009).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21), 41-84. <https://doi.org/10.20923/KJAS.2009.21.041>
- 김경희 (2022). 서발턴 연구에서 ‘재현’의 문제와 지식인의 역할 -일본의 당사자성 문제에 주목하여-. 일어일문학연구, 122, 217-238.
- 김미라 (2021). 청주 동네기록관으로 본 마을 공동체 아카이빙의 발전에 관한 연구. 디지털문화아카이브, 4(1), 5-17. <http://doi.org/10.23089/jdca.2021.4.1.001>
- 김성일 (2016). 86호를 발간하며, 문화과학, (86), 4-17.
- 김익한 (2010). 마을 아카이빙 시론. 기록학연구, (26), 151-172. <https://doi.org/10.20923/KJAS.2010.26.151>
- 김화경 (2012).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 전략 - 부산 산복도로 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143-161. <https://doi.org/10.14404/JKSARM.2012.12.2.143>
- 박성재 (2017). 성과평가에 기반한 기록관의 사회적 영향 분석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1), 73-92. <https://doi.org/10.14404/JKSARM.2017.17.1.073>
- 박승하, 이은정 (2020). 당사자와 비당사자의 관계에 대한 고찰. 서울NPO지원센터.
- 배은희, 설문원 (2023). 시민의 ‘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 획득 과정 : 완월동 시민아키비스트 기록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3(1), 63-79. <https://doi.org/10.14404/JKSARM.2023.23.1.063>
- 설문원 (2010).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기록학연구, (26), 103-149. <https://doi.org/10.20923/KJAS.2010.26.103>
- 손동유 (2020). 민간 아카이브 활성화의 의미와 과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5), 89-108. <https://doi.org/10.20923/KJAS.2020.65.089>
- 손동유 (2021). 민간 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모색. 기록학연구, (69), 7-33. <https://doi.org/10.20923/KJAS.2021.69.007>
- 손동유, 이경준 (2013).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기록학연구, (35), 161-206. <https://doi.org/10.20923/KJAS.2013.35.161>
- 양월운 (2020). 주민주도형 아카이빙 활동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사례 연구.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10), 149-179. <https://doi.org/10.23035/KAICS.2020.1.10.149>
- 영도문화도시센터 (2022). 문화도시 영도 홈페이지. 출처: <http://ydct.or.kr>
- 영도문화도시센터 (2022). 영도문화도시 비전보고서.
- 원종관 (2021. 6. 11). 기록보다 기록활동, 이 어려운 일. 상생협력 워크숍 청주시기록관 공동포럼 <기록과 문화도시>.
- 윤은하 (2012).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33), 3-37. <https://doi.org/10.20923/KJAS.2012.33.003>
- 윤은하 (2023). 시민기록에 대한 개념적 고찰. 기록학연구, (77), 75-107. <https://doi.org/10.20923/KJAS.2023.77.075>
- 이경래 (2013). 북미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논의와 비판적 독해. 기록학연구, (38), 225-264. <https://doi.org/10.20923/KJAS.2013.38.225>

- 0.20923/kjas.2013.38.225
- 이경래 (2015).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모델 연구. 기록학연구, (45), 51-82. <https://doi.org/10.20923/KJAS.2015.45.051>
- 이경래 (2022). 정동의 기록화 '4.16 기억저장소'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74), 5-43. <https://doi.org/10.20923/kjas.2022.74.005>
- 이경래, 이광석 (2013). 영국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전개와 실천적 함의. 기록학연구, (37), 3-39. <https://doi.org/10.20923/kjas.2013.37.003>
- 이도순 (2021). '기록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연구. 기록학연구, (69), 95-128. <https://doi.org/10.20923/kjas.2021.69.095>
- 이동연 (2016). 정동과 이데올로기. 문화과학, (86), 24-58.
- 이정연 (2021). 주민 주도 기록화 실천의 성과와 의미: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13), 95-137. <http://doi.org/10.23035/KAICS.2021.1.13.095>
- 조영삼 (2016). 공동체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한국기록관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 춘계공동, 115-121.
- 조영삼 (2022. 5. 13). 시민 기록문화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검토. 2022년도 한국기록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 철학사전편찬위원회 (2009). 역능. NAVER 지식백과.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180930&cid=41978&categoryId=41985>
- 청주문화도시센터 (2021). 문화도시 청주 홈페이지. 출처: <https://www.cjculture42.org>
- 최 원 (2016). '정동 이론' 비판. 문화과학, (86), 82-112.
- 최재희 (2014). '아래로부터의 역사' 서술과 기록의 상호 관계 - 영국의 역사위크숍운동을 중심으로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3), 139-163. <https://doi.org/10.14699/KBIBLIA.2014.25.3.139>
- 최진석 (2019a). 감응의 정치학 : 코뮌주의와 혁명. 서울: 그린비.
- 최진석 (2019b). 어펙트(Affect)이론 입문: 제1강 스피노자-신체, 또는 영향을 주고받는 자동기계들. 아트앤스터디. 출처: https://www.artnstudy.com/n_Lecture/?LessonIdx=jschoi007
- 현문수 (2013). 민간-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정보 공유 방향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127-150.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3.127>
- Brophy, P. (2005). The development of a model for assessing the level of impact of information and library services. Library and Information Research (LIR), 29(93), 43-49. <https://doi.org/10.29173/lirg200>
- Caswell, M., Cifor, M., & Ramirez, M. H. (2016). "To Suddenly Discover Yourself Existing": Uncovering the Impact of Community Archives. The American Archivist, 79(1), 56-81. <https://doi.org/10.17723/0360-9081.79.1.56>
- Cifor, M. & Gilliland, A. J. (2016). Affect and the archive, archives and their affects—a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Archival Science, 16(1), 1-6. <https://doi.org/10.1007/s10502-015-9263-3>
- Cifor, M. (2016). Affecting relations: Introducing affect theory to archival discourse. Archival Science, 16(1), 7-31. <https://doi.org/10.1007/s10502-015-9261-5>
- Community Archives Development Group(CADG) (2007). Impact of Community Archives. Available: <https://www.communityarchives.org.uk/content/resources/resources/resources-produced-by-cahg/impact-of-community-archives-getting-started>
- Cvetkovich, A. (2003). An archive of feeling: trauma, sexuality and lesbian public culture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재인용: Cifor, M. (2016). Affecting relations: Introducing affect theory to archival discourse. Archival Science, 16(1), 7-31. <https://doi.org/10.1007/s10502-015-9261-5>

- Duff, W. (2011). *Archival Metrics and Economic Impact*.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Digital Preservation, New Zealand: Wellington.
- Duff, W. M., Flinn, A., Suurtamm, K. E., & Wallace, D. A. (2013). Social justice impact of archive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Archival Science*, 13(4), 317–348. <https://doi.org/10.1007/s10502-012-9198-x>
- Gilliland, A.J. (2015). Studying Affect and its Relationship to the Agency of Archivists Since the Yugoslav Wars. *Archival Research and Education*. Sacramento: Litwin Books. Available: <https://escholarship.org/uc/item/6x27c942>
- Halilovich, H. (2016) Re-imaging and re-imagining the past after ‘memoricide’: intimate archives as inscribed memories of the missing. *Archival Science*, 16, 77–92. <https://doi.org/10.1007/s10502-015-9258-0>
- Hardt, M & Negri, A. (2000). *Multitude: War and Democracy in the Age of Empire*. London: A Penguin Books. 조정환, 정남영, 서창현 옮김 (2008). 서울: 세종서적. 재인용: 박현선 (2016). 정동의 이론적 갈래들과 미적 기능에 대하여. *문화과학*, (86), 59–81.
- Horton, S. & Spence, J. (2006). Scoping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Archives.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MLA) Council Yorkshire. <https://doi.org/10.20923/KJAS.2020.65.089>
- Lowry, J. (2019). Radical empathy, the imaginary and affect in (post)colonial records: how to break out of international stalemates on displaced archives. *Archival Science*, 19(2), 185–203. <https://doi.org/10.1007/s10502-019-09305-z>
- Masummi, B. (2015). *Politics of Affect*. Queensland: Polity. 조성훈 옮김 (2018). *정동정치*. 서울: 갈무리.
- PSQG. (2001). Survey of visitors to British archives – February 2001: national report. 재인용: Horton, S. & Spence, J. (2006). Scoping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Archives.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MLA) Council Yorkshire. <https://doi.org/10.20923/KJAS.2020.65.089>
- Spinoza, B. (1677). *Ethica*. 강영계 옮김 (1990). *에티카*. 서울: 서광사.
- Stevens, M., Flinn, A., & Shepherd, E. (2010). New frameworks for community engagement in the archive sector: from handing over to handing 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6(1–2), 59–60. <https://doi.org/10.1080/13527250903441770> 재인용: 설문원 (2012).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 8. <https://doi.org/10.20923/kjas.2012.32.003>
- UCLA Community archive Lab (2018). *Assessing the Affective Impact of Community Archives – A Toolkit*.
- Waterton, E. & Smith, L. (2010). The recognition and misrecognition of community heritage.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6(1–2), 4–15. <https://doi.org/10.1080/13527250903441671>. 재인용: Duranti, L. & Franks, P. C. (2015). *Encyclopedia of Archival Science*.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 Wavell, C., Baxter, G., Johnson, I., & Williams, D. (2002). Impact evaluation of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available evidence project. A report for Resource: the Council for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Aberdeen: Robert Gordon University. Available: <http://hdl.handle.net/10059/1787>
- Yakel, E. (2012). Economic Impact of Government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3), 155–176. <https://doi.org/10.14404/JKSARM.2012.12.3.155>
- 佐藤知久, 甲斐賢治, 北野央 (2018). *コミュニティ・アーカイブをつくろう！—せんだいメディアテーク「3がつ11にちをわすれないためにセンター」奮闘記*, 東京: 晶文社. 윤주 옮김 (2021). 커뮤니티 아카이브 만들기: 센다이미디어테크: ‘3월 11일을 잊지 않기 위하여 센터’ 분투기. 부산: 빨간집.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 Eunhee & Seol, Moon-Won (2023). An Analysis of Ensuring Partyhood of Citizen Archivists in Documenting the Underprivileged: Case of Archival Activities of Wanwol-Don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3(1), 63-79. <https://doi.org/10.14404/JKSARM.2023.23.1.063>
- Cheongju Cultural City Center (2021). Record Culture Creative City Cheongju homepage. Available: <https://www.cjculture42.org>
- Choi, Jae Hee (2014). Reciprocal Relation between “History from Below” and Archives: with Reference to the History Workshop Movement in England.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3), 139-163. <https://doi.org/10.14699/KBIBLIA.2014.25.3.139>
- Choi, Jin Seok (2019a). The politics of affect: Communism and revolution. Seoul: Greenbee.
- Choi, Jin Seok (2019b). Introduction to Affect Theory: Lecture 1 Spinoza-Bodies, or automatic machines that give and receive affect. Artnstudy. Available: https://www.artnstudy.com/n_Lecture/?LessonIdx=jschoi007
- Choi, Won (2016). Criticising ‘Affect Theory’. *Culture/Science*, (86), 82-112.
- Committee for the Compilation of the Dictionary of Philosophy (2009). puissance. NAVER Knowledge Encyclopedia. Available: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180941&cid=41978&categoryId=41985>
- Hyun, Moonsoo (2013). A Study on Sharing Descriptive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Private and Community Archive Network.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3), 127-150.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3.127>
- Hyun, Moonsoo (2013). A Study on Sharing Descriptive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Private and Community Archive Network.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3), 127-150.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3.127>
- Kang, Sungbong (2022). The beginning of decentralization: Seongbuk Village Archiv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2(1), 237-243. <https://doi.org/10.14404/JKSARM.2022.22.1.237>
- Kim, Hwa-Kyoung (2012). Acquisition Strategy for Constructing Local Archives: The Case of Busan Sanbokdoro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2), 143-161. <https://doi.org/10.14404/JKSARM.2012.12.2.143>
- Kim, Ik-han (2010).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archiving of a village.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6), 151-172. <https://doi.org/10.20923/KJAS.2010.26.151>
- Kim, Kyounghee (2022). The issue of ‘Representation’ in Subaltern Studies and Roles of Intellectuals -paying attention to ‘partyhood’ in Japan-. *Journal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122, 217-238.
- Kim, Mira (202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Village Community Archiving through Cheongju Neighborhood Archives. *Journal of D-Culture Archives*, 4(1), 5-17. <https://doi.org/10.23089/JDCA.2021.4.1.001>
- Kim, Sung-Il (2016). With the publication of issue 86. *Cultural Science*, (86), 4-17.
- Kwon, Soon-Myung & Lee, Seung-Hwi (2009). A study on documentation strategy for archiving locality.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1), 41-84. <https://doi.org/10.20923/KJAS.2009.21.041>
- Lee, Dong Yeun (2016). Affect and ideology. *Culture/Science*, (86), 24-58.
- Lee, Dosoon (2021). A Study on the Direction of ‘Citizen Archivist’ Training Program.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69), 95-128. <https://doi.org/10.20923/kjas.2021.69.095>

- Lee, Jung-Yeon (2021). The Achievements and Meanings of Resident-led Archiving Practice: Focusing on Jeungpyeong Archiving Project.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Information and Cultural Studies*, (13), 95-137. <https://doi.org/10.23035/KAICS.2021.1.13.095>
- Lee, Kyong Rae & Lee, Kwang-Suk (2013). The Realities and Practices in the UK's Community Archives Movement.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7), 3-39. <https://doi.org/10.20923/KJAS.2013.37.003>
- Lee, Kyong Rae (2013). A Study of the Governance Discussion on Community Archives in North America.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8), 225-264. <https://doi.org/10.20923/KJAS.2013.38.225>
- Lee, Kyong Rae (2015). The Politics and Governance of 'Maeul' Community Archives in Sou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5), 51-82. <https://doi.org/10.20923/KJAS.2015.45.051>
- Lee, Kyong Rae (2022). Affects in and of Archives : Focused on 4.16 Memory Storage.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74), 5-43. <https://doi.org/10.20923/kjas.2022.74.005>
- Park, Hyun-Sun (2021). Women's Fears: Populism, Gender, and Affect. *Culture/Science*, (108), 125-145.
- Park, Seungha & Lee, Eunjung (2021). A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and the non-parties. SEOUL NPO CENTER.
- Park, Sungjae (2017). A Study on Social Impacts of Archives through Outcome-based Evalu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7(1), 73-92. <https://doi.org/10.14404/JKSARM.2017.17.1.073>
- Seol, Moon-Won (2010). Directions of Implementing Documentation Strategies for Local Region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6), 103-149. <https://doi.org/10.20923/KJAS.2010.26.103>
- Seol, Moon-Won (2012). Building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for Documenting Localiti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2), 8. <https://doi.org/10.20923/kjas.2012.32.003>
- Sohn, Dong You & Lee, Kyoung-juhn (2013). A Plan to Activate the Archive of Maeul Communiti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5), 161-206. <https://doi.org/10.20923/KJAS.2013.35.161>
- Sohn, Dong You (2020). A Study on the Meaning and Tasks of Vitalizing Private Archives : Focused on Maeul-community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65), 89-108. <https://doi.org/10.20923/KJAS.2020.65.089>
- Sohn, Dong You (2021). Searching for Laws and Systems to Revitalize Private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69), 7-33. <https://doi.org/10.20923/KJAS.2021.69.007>
- Won, Jong-Kwan (2021. 6. 11). Recording activities rather than records, the hard part. Win-Win Cooperation Workshop Cheongju Archives Joint Forums <Archives and Cultural City>.
- Yang, Wol Oun (2020). A Case Study on the Urban Village Making Project for Resident-led Archiving.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Information and Cultural Studies*, (10), 149-179. <https://doi.org/10.23035/KAICS.2020.1.10.149>
- Yeongdo Cultural City Center (2022). Artcity Island Yeongdo homepage. Available: <http://ydct.or.kr>
- Yeongdo Cultural City Center (2022). Yeongdo Cultural City Vision Report.
- Youn, Eun-ha (2012). Communities and community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3), 3-37. <https://doi.org/10.20923/KJAS.2012.33.003>
- Youn, Eun-ha (2023). An Study on the Concept of Civic Record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77), 75-107. <https://doi.org/10.20923/KJAS.2023.77.075>
- Zoh, Young-sam (2016). The role of public institutions in enabling community archives. *Conference Proceeding of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016*, 115-121.

Zoh, Young-sam (2022. 5. 13). A few reviews to revitalize the civil record culture. 2022 Spring Conferen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pring Conference.